베트남 • 한국인 입맛 사로잡은 쌀국수의 본고장 세상에서 가장 여성스러운 옷 '아오자이'

▼ 후에는 1802~1945년까지 베트남의 수도였던 곳으로 13대까지 이어진 구엔왕조가 많은 유적지를 남겨 놓았다. 유네스코가 199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베트남을 방문하기에 좋거나 나쁜 시기란 딱히 없다. 대략 5~11월의 우기, 12~4월의 건기로 구분하기는 하나 고온다습한 날씨가 1년 내내 이어지기 때문이다. 햇볕이 뜨거우므로 선크림과 모자, 선글라스, 얇은 긴소매 옷은 필수다.

베트남은 국토의 4분의 3이 산악, 고원, 구릉지이고 2천860여 개의 강이 유유히 흐르는 나라다. 여행지로는 최대 도시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프랑스풍 휴양지 붕따우, 나짱 해변과 후에, 호이안, 다낭으로 이어지는 유적지 등이 손꼽힌다.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는 북부 지역이다. 수도 하노이를 둘러본 뒤 싸파까지 가서 고산족 생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노이와 베이징을 연결하는 국제열차를 타고 중국까지 가보는 것도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후에, 화려했던 왕조 시대로

베트남 중심부에 위치한 후에는 70%가량이 산과 숲으로 이뤄져 있다. 베트남 최대의 쌀 생산지이며 붉은색의 델타강으로도 유명하다. 1802~1945년까지 수도였고 구엔왕조가 13대에 걸쳐 번성하며 많은 유적지를 남겼다. 후에는 유네스코가 199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화려한 자취를 간직한 왕궁과 여러 왕의 무덤들이 있어 역사 여행에 제격이다. 주변에 높은 건물 없이 푸른 하늘만 배경으로 서 있는 드넓은 왕궁은 코끼리를 타고 둘러볼 수도 있다. 웅장한 규모로 미뤄 당시의 권세를 능히 짐작할 수 있지만 허물어 가는 담장과 무심하게 핀 꽃과 풀들을 보노라면 권력의 무상함에 절로 젖어든다. 우리 돈으로 약 1천700원이면 빌리는 자전거를 타고 사원이나 시가지를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호찌민, '동양의 진주'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의 후원을 받은 남부 베트남의 수도로 우리에게는 '사이공'이라는 옛 이름으로 친숙하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북부 베트남 지도자 호찌민의 이름을 따서 도시 명칭을 바꾼 후 새롭게 정비됐다. 면적이 서울의 3배가량이나 되는 베트남 최대 도시로 경제의 중심지이자 가장 큰 항구

1

2

3

1. 베트남의 주요 여행지로는 최대 도시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프랑스풍 휴양지 붕따우, 나짱 해변, 후에-호이안-다낭으로 이어지는 역사 유적지 등이 손꼽힌다. 사진은 다낭 대성당.
2. 나짱은 약 10km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변과 휴양지로 유명하다. 맑은 날씨가 연중 300일 넘게 이어지며 습도가 쾌적해 베트남 최고의 해변으로 각광받는다.
3. 노점은 물론이고 비좁은 포장마차와 가게가 잔뜩 몰려 있어도 허름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정겹고 아기자기하게 다가오는 베트남 전통시장.

이기도 하다. 2세기 전에는 일본, 중국, 서양의 무역상이 이곳 선착장을 통해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베트남 교역의 중심지로 떠올라 '동양의 진주'로 불리기도 했다. 이동할 때에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로를 주로 보트를 타고 가므로 이것만으로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화려한 숙소나 음식점, 쇼핑센터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신 소박하고 정감 가는 풍경과 순박한 미소의 시민들이 여행객을 반가이 맞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꼽히는 '아오자이' 차림의 여성들을 보는 눈의 호사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요즈음 한국에서 인기 높은 베트남 쌀국수의 본고장에서 즉석에서 말아먹는 뜨끈한 쌀국수는 한국에서와는 또 다르게 입맛을 순식간에 휘어잡는다.

호이안, 유서 깊은 옛 도시

17세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대의 항구도시 호이안은 무척 복고적인 분위기다. 대도시처럼 아오자이를 휘날리며 달리는 오토바이 물결은 찾아보기 힘들고 높은 건물도 없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채 옛 풍경을 이어가는 시가지가 어딘지 모르게 정겹고 멋스럽다. 그래서인지 하노이와 호찌민만큼 유명하지 않은데도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을 잘 아는 여행자들은 이곳을 최고의 여행지로 꼽는다. 중국,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 등 외국 상인이 빈번히 드나들며 19세기 무렵까지 무역의 요충지로 번영을 누렸고 16~17세기에는 일본인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곳곳에서 중국과 일본의 자취가 느껴지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흔적도 여기저기 남아 있다.

하노이, 정치의 중심지

베트남의 날씨는 1월에도 30℃를 웃돌 정도로 무덥다. 하노이는 그러나 호수와 숲으로 둘러싸여 그런지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다. 300여 개에 이르는 호수 때문에 습도가 높은 게 흠이지만 1천 년 역사를 지닌 도시답게 유서 깊은 사

4

5

4. 호이안의 등 풍경. 고대의 항구도시 호이안은 17세기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무척 복고적이다. 하노이와 호찌민만큼 유명하지 않아도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을 잘 아는 여행자들은 이곳을 최고의 여행지로 꼽는다.

5. 오토바이 물결은 베트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풍경의 하나다. 식민지 시절의 건물이 무채색의 베트남식 건물들과 묘하게 조화를 이룬 하노이.

찰이 즐비하다. 과거 식민지 시절의 건물이 무채색의 베트남식 건물들과 어울려 빚어내는 묘한 조화도 운치 있다. 비좁은 포장마차와 가게가 잔뜩 몰려 있는 거리도 허름하기보다는 정겹고 아기자기하게 다가온다. 호찌민이 경제의 중심지라면 하노이는 정치 1번지다. 또 호찌민이 요란하고 활기 넘친다면 하노이는 조용하고 아늑하다. 자전거와 마차가 반씩 섞인 듯한 '시클로'를 타고 시내 관광에 나서면 남성들이 쓰고 다니는 짙은 녹색의 모자와 레닌공원의 전투기 놀이도구 등에서 옛 소련의 영향과 사회주의의 잔재가 느껴진다.

나짱, 베트남 최고 해변

베트남 남부와 중부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구 30만의 작고 아담한 도시다. 약 10km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변과 휴양지로 유명하며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해변을 달리는 기분이 아주 그만이다. 맑은 날씨가 연중 300일 이상 이어지고 습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쾌적함 덕분에 베트남 최고의 해변으로 각광받는다. 특이한 모양의 탑과 사원이 볼 만한 참파왕국 유적지를 탐방하거나 야외온천에서 진흙탕에 몸을 담그고 노천욕을 즐겨도 좋다. 영양분이 풍부한 천연 진흙은 원기 회복과 피부 관리에 좋아 여행객은 물론 현지인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서지훈 기자 ibuddy@hanmail.net

사진 · 자료제공_ **하나투어**(www.hanatour.com)

Tip

베트남은 요리가 무척 다양하다. 박쥐, 코브라 등 온갖 고기로 만드는 전통요리가 500여 종에 달한다. 여러 채소와 고기, 생선, 양념, 소스 등에 흰쌀을 섞어 만든 요리가 주종이며 증기로 찐 쌀 팬케이크나 뱀장어, 국수, 닭고기에 쓴맛의 소스를 넣은 수프는 간단한 요기에 좋은 음식이다. 녹색의 드래곤 과일, 주줍, 크하키, 롱간, 만고스틴, 포멜로 등 한국에서 보기 힘든 과일과 씨앗이 3개인 체리도 맛볼 수 있다. 커피 수출국답게 커피 맛도 일품이다.